

주일 예배 2026년 9월 27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찬송가 23장

*성서 교독 / 성서 교독문 74번(마태복음 5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인애하신 구세주여 / 찬송가 279(신) 337(구)

기도 / 한미숙 권사

성경 봉독 / 에스겔 1장 1-3, 36장 26-28절, 43장 1-5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선지자적인 성도의 삶 / 박화신 목사

찬송 /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 찬송가 242(신) 233(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살아계신 주 / 다같이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인생을 준비했지만, 바벨론 포로가 되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만나 선지자로 부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2. 우리도 인생을 나름대로 그려가지만, 내가 그린 그림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가 그린 그림에서 하나님의 그림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 1:15

지난 주
설교 요약

다 드러난
자리에서

히 4:12-1

1. 말씀 앞에 서면 결국 자신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을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행동뿐 아니라 그 뒤에 있던 생각과 의도까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2. 그런데 히브리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냥 세워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에게서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이 이 본문이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3. 그래서 신앙은 점점 괜찮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 지금의 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거기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내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나를 아시는 분이 나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4.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지만, 드러남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고, 동시에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필요한 때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방식입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생명샘 소식

1. 2026년 교회 표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2.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의 힘을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셔서, 받은 은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 우리 생명샘 온라인 예배를 실험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교회를 알리며 복음의 선포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오늘 예배와 친교 후에 바울, 루디아 전도회 연합으로 모이겠습니다.
5. 다음 주일, 10월 4일 EM과 연합 예배드립니다. 성찬식 있습니다.
6. 신정호 미얀마 선교사님과 강승우 파라과이 선교사님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예배위원

안 내	박래석	최명희
기 도	장미혜(4)	조창(11)
	박승화(18)	한광기(25)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에스겔 1:1-3, 36:26, 43:1-5

GRACE
FOR
TODAY



선지자적인 성도의 삶

내가 그린 그림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3가지 핵심

- 1 **내가 그린 그림과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겔 1:1-3)
- 2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며, 그의 삶을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겔 36:26)
- 3 **마침내 더 큰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성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림은 우리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겔 43:1-5)

오늘 우리의 결단

- 1 **이해하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상황만으로 인생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 2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더 큰 그림을 믿겠습니다.
- 3 **오늘을 충실히 살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26

SEE THE TRUTH • MEET THE SAVIOR • LIVE TODAY